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소식지



OCT-DEC 2018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 V. Newsletter

www.vekni.org



2019년 재독과협 춘계학술대회 안내

2019년 춘계 학술대회가
5월 3 - 5일
Stuttgart 에서 열립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존경하는 재독과협 회원 여러분,

2018년을 마감하는 시기에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제29대 회장단의 임기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큰 과오없이 지난 3년간 협회를 이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수고하여 주신 전임 현임 회장단을 비롯한 평의원님들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의 회원으로 십 수년의 기간 많은 혜택을 받았기에 때가 되어 봉사한다고 말은 직책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가며 스스로의 역량도 키우고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 유럽의 한인과학기술자들이 한국과 유럽의 과학기술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EKC 2016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특별히 유럽 9개 과협의 화합과 협력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VeKNI-DAAD 워크숍, 한-독환경워크숍 등 한국과 독일의 교류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회원이 물리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특별히 학술분야 교류를 강화하여 학부부터 대학원 학생, 그리고 일반 과학기술 연구 분야 및 산업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님들의 교류의 장을 넓혔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회의 발전을 위해 평의원 수를 일원화하고 부평의원을 신설하여 지역회가 고루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과협의 현실에 맞게 전문분과를 조정하고 분과의 실질적 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회장단 임원을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직무에 따라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간사장을 선출직하여 협회의 회무 전반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학술, 총무, 재무, 편집, 홍보, 정보 간사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이고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몇 사람의 열정과 희생으로 협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요구에 맞추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정과 화합, 그리고 봉사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협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지난 관성으로 변화된 협회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일부 회원들께 상처를 드린 것은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기쁨을 나누었거나 혹은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모든 분들이 다가오는 2019년에는 다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재독과협 회원 여러분, 고국을 떠나 외국의 하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공유합니다. 유럽의 다른 과협회원님들과 교류하며 유럽의 하늘 아래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재독과협의 회원님들과 함께 하며 독일의 문화 아래 한국인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학기술인의 나눔을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난 3년간 부족한 사람을 회장으로 존중하여 주시고 잘 따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 기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3년 간 분기별로 소식지를 빠지지 않고 편집해 주신 이선희 전임 편집간사님과 김민재 편집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장님을 중심으로 협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간사님들과 늘 옆에서 잘 보좌하여 주신 부회장님, 간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의원님, 회원님 모든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제29대 회장 박원선



1지역 (Berlin)

2018년 4분기에는 많은 학술 교류 활동이 있었습니다. 10월 27일엔 1지역 하반기 개강모임이 베를린 공대에서 있었고, 11월 2일엔 2018년도 4분기를 맞아서 친목을 다질겸 재독과협 1지역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기대하던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동천, 이수석, 박재홍, 채현기회원님께서 다양한 주제로 발표해주셨고 이어진 토론 시간에 다채로운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12월 6일엔 한국 UST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담당자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2월 13일에는, 1지역 2018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 활동보고 및 회계정리를 통해서 한해를 뒤돌아 보고 2019년 신임 평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수석 (TU Berlin 우주공학 석사과정) 신임 평의원과 이세진 (TU Berlin 건축 석사과정) 신임 부평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송년회 및 네트워킹을 하면서 1지역 회원들과의 친목을 다졌고 2018년 한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지역 (Hambrug, Kiel, Bremen)

지난 3월 24일, 그간 교류가 뜸했던 또 다른 자유한 자도시 브레멘에서 뜻 깊은 만남이 있던 후 약 9 개월 만에 Kiel에 위치한 재독과협 사무실에서 2018년 하반기 2지역회 학술세미나 및 정기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시작된 행사는 다채롭고 재미있는 자기소개와 사뭇 진지하고 전달력 높은 학술세미나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열린 대화의 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1분1초가 의미있고 소중했습니다. 타지역 회원 2명과 비회원 3명과 함께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승훈, 권지희, 하광태, 이요한 회원의 발표와 함께 이어진 다양한 주제의 학술토론이 있었습니다.



3지역 (Hannover, Braunschweig, Clausthal)

지난 10월 19일, 겨울학기를 맞이하여 하노버 학생회에서 개강파티를 개최하였으며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겨울학기 개강파티임을 고려해서 저녁식사후 재독과협 소개시간이 있었습니다. 10월 26일에도 겨울학기를 맞이 브라운슈바이크 학생회에서 개강파티를 개최하였으며 신입회원들에게 저녁식사후 재독과협 소개를 하였습니다.

12월 15일, 지역회원 12명과 함께 Universität Hannover에서 송년회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용호, 고휘경, 홍성주 회원님께서 다양한 주제로 발표해 주셨고, 이어진 열띤 토론시간을 통해서 의견교환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역회 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지역 학생분들과 친교시간을 가졌습니다.

6지역 (Darmstadt, Frankfurt, Heidelberg, Mainz)

2018년을 보내는 연말을 맞이하여, 1, 2, 5, 6, 7, 10 지역등 총 6개 지역의 총 16분의 회원이 프랑크푸르트 북부 인근 Pfadfinderzentrum에 모여 2박 3일 동안 학술세미나를 겸한 송년회를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6, 7지역 연합행사로 기획했지만 선뜻 먼길 와주신 여러 회원님들 덕분에 총 6개 지역의 여러 회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의열, 안현섭, 조용래, 정현덕, 손민 회원님등 총 5분의 발표로 이루어진 학술세미나에선 활발한 질문들과 함께 타분야의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모든 회원분들이 함께 식사를 직접 준비해 먹으면서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송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지역 (Bochum, Düsseldorf, Dortmund, Essen, Wuppertal, Duisburg)

2019년을 2주 정도 앞둔 지난 12월 14일에 루어지역 학생회와 함께 송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규회원 확보를 위한 재독과협 및 재독과협 4지역 관련 홍보를 하였으며, 성동근, 최항석 회원님께서 여러 주제



7지역 (Stuttgart)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에서 매년 진행하는 “코센데이” 참여를 위해 10월 26일 (금) 저녁 6시 유니 인근 중식당에서 지역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토론 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에 관해 각자 전공 분야를 토대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함께하였고 식사 후에는 자리를 옮겨 맥주 한 잔 기울이며 늦은 시간까지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내 자동차분야 한인 종사자 간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금) 저녁 6시 시내 중심가 식당에 총 16명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은 “SK이노베이션“ 의 후원을 받아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8지역 (München, Augsburg)

12월 1일 (토), 뮌헨에서 하반기 학술세미나 및 송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는 전자공학, 물리, 산업디자인, 기계, 스포츠과학 등 쉽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병관, 이상현, 박지태, 이은경, 황창원, 류윤지 회원님등의 발표를 해주신 연사들 역시 학/석사 과정 학생, 연구원, 직장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편하고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인근에 위치한 태국식 레스토랑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녁식사 후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각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세미나는 비회원 2명을 포함하여, 총 22명, 송년회는 총 26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12지역 (Dresden)

11월 10일, 12지역 하반기 학술회 및 친목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강민경, 김동현 회원님의 학술세미나, 감사 선물 전달, 재독 한국 과학자 기술자 협회의 소개, 친목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협회원 분들과 새로운 지역 학생 분들의 활발한 지식 및 문화교류의 장 이였습니다. 또한 지역 학생 분들에게 재독과협에 대해 소개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3지역 (Hannover, Braunschweig, Clausthal)

올해를 마지막으로 홍성주 박사님이 한국으로 귀국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홍성주 박사님을 위해 하반기 학술회 겸 송별회에서 재독과협에서 드리는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재독과협은 홍성주 박사님의 앞날에 밝은 빛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4지역 (Bochum, Düsseldorf, Dortmund, Essen, Wuppertal, Duisburg)

최용욱 회원님(Chestry, 박사과정, Ruhr-University Bochum)께서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model nanoscale material systems for electrocatalysis application"이라는 주제로 박사과정을 완료하셨습니다. 성동근 회원님(Material Science and Simulation, 석사과정, Ruhr-University Bochum)께서 석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두 분의 성공적인 학위취득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밝은 빛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7지역 (Stuttgart)

지역회 활동에 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던 윤송학 회원님 (재료공학 박사, Universität Stuttgart) 께서 신년 부터 6지역에 위치한 Fraunhofer 연구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여 주셨던 지역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에는 가정과 연구소에서 좋은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지역 부평의원으로 활동 중인 박우석 회원님 (항공우주공학 석사, Universität Stuttgart) 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드리며 앞날에 밝은 빛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8지역 (München, Augsburg)

한재준 회원님(Mathematical Finance & Actuarial Science 전공, 석사과정, TU München)이 석사과정 졸업 후 독일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독과협은 회원님의 앞날에 밝은 빛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지난 4분기동안, 김인근 회원님(기계공학 전공), 신준수 회원님(항공우주공학 전공, 박사후 과정, Universität der Bundeswehr München), 한상진 회원님(Sales, BMW AG), 이민주 회원님(천체물리학 전공, 박사후 과정, Max Planck Institute for extraterrestrial Physics), 한원섭 회원님(세라믹공학 전공, BMW AG), 이태균 회원님(Power Engineering 전공, 석사과정, TU München), 백유선 회원님(화학공학과 전공), 김대식 회원님(물리학 전공, 석사과정,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이 재독과협에 신규 회원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재독과협 3분기 활동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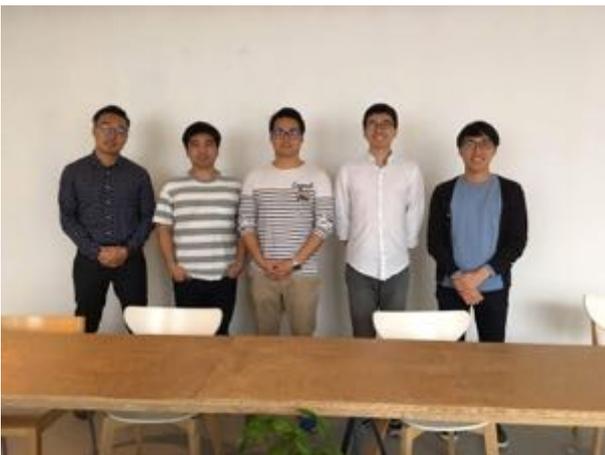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전기전자정보 분과 (머신러닝 그룹 모임)

10월 20일, Bonn에서 지난 춘계학술대회 전기전자 정보 분과 모임에서 머신러닝/인공지능 관련 종사자들 모임을 갖자는 얘기를 시발점으로 세 명의 분과 회원들(권오훈, 신승한, 허준화)들이 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 자기 소개 및 현재 연구/업무 분야에 대한 소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였고, 머신러닝 관련 시행착오 경험담 및 조언들을 공유하는 유기적인 모임의 장이 되었습니다.

Telecommunications, Computer Vision, Bio-informatics, Finite Element Method 등 다양한 분야를 머신러닝과 관련지어 연구관련 유익한 토론을 하였고, 다음 모임에는 머신러닝 Tutorial, 라이브러리에 대한 팁 공유, 라이브러리 사용 데모 등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환경/에너지 분과

11월 17일, 김주표 분과장 외 총 32 명의 인원은 Energeticon in Alsdorf 견학을 함께 했습니다. 2018년 한해에도 환경/에너지 분과는 많은 견학을 통한 재독과협 활동이 있었습니다. 한해동안 수고해주신 김주표 분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지 말미에서 다양한 사진과 함께 김주표 분과장님의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분과

과학 기술과 함께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토론이 11월 8일 뮌헨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캠프의 형태로 개최되었습니다. 재독과협과 유럽 동반성장 연구회의 기술적 도움뿐 아니라 한인회, 한글학교, KOTRA, 뮌헨한인교회, 삼성 SDI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재독과협에서는 이보현 부회장님과 윤성호 기계분과장님을 중심으로 1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소식지 말미에서 윤성호 기계 분과장님과, 강남구, 김성희 회원 그리고 이현경 학생의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재독과협 3분기 활동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제2회 한독 환경워크숍

일시: 2018년 11월 13-14일

장소: Universität Stuttgart

대상: 모든 재독과협 회원

우리 협회는 중요한 환경 이슈에 대하여 한국과 독일 양국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속적으로 특별 워크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1회 한독 환경워크숍에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질 개선 방안; Urban air pollution control facing human health" 라는 주제로 제2회 한독 환경워크숍이 재독과협 주관으로 Universität Stuttgart에서 열렸습니다 (과총/슈투트가르트시 후원). 이현정 학술간사님의 진행 아래 다뤄진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문제의 현황 및 영향, 저감과 관리 대책 방안과 증가되고 있는 NO₂ 로 기인하는 건강 문제 및 저감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서, 정확한 대기질 평가를 위한 측정 및 모델링 방안, 녹지와 대기질 관계등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행사였던 만큼 다양한 의견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재독과협 3분기 활동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박사후연구원 커리어개발/인적네트워크 강화사업

일시: 2018년 10월 10-11일

장소: H4 Hotel München Messe

대상: 독일 내 전/현직 박사후연구원 및 이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과협 회원

2018년 과총 특별사업 중 하나로 재독과협에서 박사후연구원 커리어개발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사업 (약칭: 박사후연구원모임) 전체 독일 전체 모임이 뮌헨에서 11월 10-11일 개최되었습니다.

독일 내 전/현직 박사후연구원 및 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재독과협 회원이 참가한 위 사업은 독일과 한국의 다른 문화 적응에 대한 지원과 커리어 개발에 수반되는 고충 최소화, 연구소/대학교 정보 취합 및 전달 그리고 R&D 펀딩 및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이하 재독과협)회원 중 약 30% 이상이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중이나, 마찬가지로 인적 네트워크가 단편화 (fragmented) 되어 있어서,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커리어 개발을 위한 유기적인 절차가 정례화 되어있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따라서 본 모임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실행위원모임을 시작으로 5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고해주신 안현섭 간사장님과 12개 지역회별 홍보 및 권역별 (남부, 중부, 서부, 북부) 거점을 담당하는 이승섭, 김청희, 손광효, 김린호, 김찬, 김윤희 실행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독과협 차세대 리더 발굴 모임 (Next generation forum in Germany)

일시: 2018년 10월 24-25일
장소: Frankfurt
대상: 재독과협 차세대 리더/회장단

독일의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한국에서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에 두 문화 사이에서 독일에서 과학기술자로 성장해 가는 차세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배경의 대한민국 또는 독일 국적의 재독과협 차세대 리더를 모집하고 본인들의 경력과 재독과협의 미래를 설계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있었던 차세대 리더 모임이 11월 24-25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습니다. 경력단계(연령)별, 거주배경별 2-3인, 한국과총주최 YGF/YPF 참석자 그리고 재독과협 회장단이 함께 참여한 이번 모임은 한-독과학기술협력소개, 한국/독일문화의 이해, 그룹별 활동방향 설계, 개인소개 및 네트워크를 알아가는 모임이었습니다.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의 편의에 따라 한국어 독일어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제 10회 한독공동학술대회 참가 (우측 사진 참조)

일시: 2018년 10월 17-19일
장소: RWTH Aachen
대상: 모든 재독과협 회원

우리 과협의 파트너 기관인 ADeKo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제 10회 한독공동학술대회가 10월 17-19일, 아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재독과협에서도 다수의 회원님들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주셨고 재료 부분과장 하광태 박사님께서도 연사로 참여하여 멋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박원선 회장 정범구 주독 대사 면담

박원선 회장은 11월 9일 베를린의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정범구 주독대사를 면담하였습니다. 박원선 회장은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활동현황을 소개하고, 한-독 과학기술교류 증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정범구 대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 발전 및 이를 위한 양국 간 교류협력에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 사의를 표하고 대사관에서도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독과협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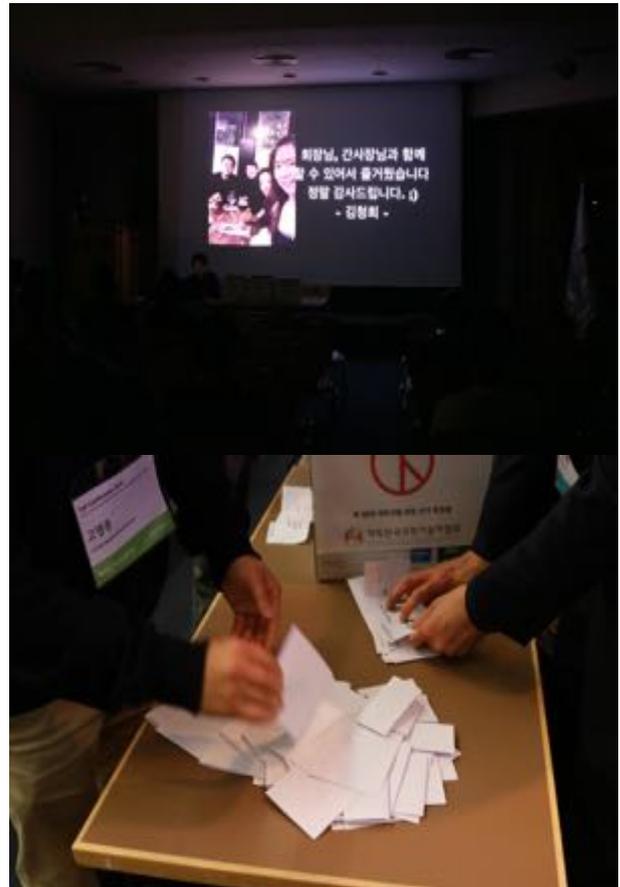
일시: 2018년 10월 5-7일

장소: BEW Bildungszentrum, 45239 Essen

화창한 가을, Essen에서는 2018년 재독과협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대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정기총회에서 다뤄진 주요안건으로는 2018년 사업보고 (지역회별 보고 포함), 2018년 재무보고, 2018년 재무 및 사업 결산 감사보고, 전문분과, 위원회 보고, 정관개정 (특별위원회 평의원 정족수 수정 등) 그리고 차기 (30대) 회장, 부회장, 간사장 선출 과 함께 차기 감사 인준이 있었습니다.



제 30대 회장으로 박원선 현 회장님이, 부회장으로 이보현 현 부회장님 그리고 간사장으로 안현섭 현 간사장님께서 재선출되었고 3년간 봉사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독과협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한 3분께 드리는 깜짝 영상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영상 주소는 15페이지 말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독과협 3분기 활동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정기 총회 이후 이어진 네트워킹 시간에는 다들 한자리에 모여서 야외 그릴파티를 즐기며 함께 맥주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래 사진들과 함께 다시금 즐거웠던 추억에 빠져보셔도 좋습니다.

추계학술대회는 총 8개의 학술세션의 14개의 다양한 주제와 함께한 50개가 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연사들 각자 준비한 자신의 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설명과 이와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가족들과 아이들을 위한 풍선만들기 세션도 준비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고해주신 각 세션장님들과 이승훈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독과협 3분기 활동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5일 저녁에는 2018년 2차 재독과협 평의원회의도 있었습니다. 다뤄진 안건으로는 신임평의원 인준, 2018년 1차 평의원회의 회의록 인준, 2018년 사업/재무보고, 2018년 재무 및 사업 결산 감사보고, 정관개정안 검토 및 인준 (특별위원회 평의원 정족수 수정 등), 그리고 차기(30대) 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감사장 후보 심의와 차기 감사 선출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날 아침엔 다양한 강연/기관발표와 참가보고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학 기술 행정과 관련 연구 사례에 관해서 발표해주신 재독과협 동문 진영현 박사님과 수소 에너지의 최신 동향에 관해서 설명해주신 재독과협 동문 오현철 교수님, 대한 민국 우주 개발의 현주소와 청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 허환일 교수님, 또한 KEIT 기관발표를 담당해주신 전준표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YGF2018 참가보고 (이기석 회원님) 와 함께 YPF2018 참가보고 (차예슬 회원님) 의 재미있는 발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독과협 3분기 활동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행사끝남과 동시에 행사 돌아보기 동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영상 열기 비밀번호 vv2018)

<https://vimeo.com/294021269>

끝으로 본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재독과협 회장단과 정현덕, 권지희, 옥이랑, 박우석, 김의열, 김미진, 김민지, 한지행, 전현정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0년 가까운 긴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독과협은 지난 오랜시간동안 끊임없이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과 독일간의 과학기술 교류를 증진 시키며 한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재독과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박원선 회장님, 이보현 부회장님 그리고 안현섭 간사장님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3년간 재독과협 모든 회원님들을 대신해서 잘부탁 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함께 수고해주신 29대 재독과협 모든 회장단, 지역평의원, 분과장, 자문위원회, 감사, 특별위원회 등 모든 평의원님들께도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해주실 30대 모든 평의원님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우석 7지역 부평의원님께서 재독과협의 바빴던 2018년 한해를 돌아보는 동영상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다들 내년 봄 Stuttgart 춘계학술대회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https://vimeo.com/308818323>

- 김의열, 박우석 회원님께서 제작하신 회장님, 부회장님, 간사장님 감사 영상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제작에 힘써주신 두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http://bitly.kr/yMFqT>

재독과협 환경/에너지 분과 와 아헨 한글학교의 Energeticon 견학

환경/에너지 분과장 김주표

일시: 2018년 11월 17일

참석자: 김주표 환경/에너지 분과장과 재독과협 회원 2 명 아헨한글학교 구현정 교장 외 31 명

장소: Energeticon in Alsdorf

아침 식사를 하고 두 아들과 함께 9 시 30 분경 Energeticon이 있는 Alsdorf 로 출발하였다. 10 시 40 분경 도착해 보니 아헨 한글학교 교장선생님과 여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다른 참석자를 기다린 후 11 시에 견학을 시작하였다. 참석자 수는 총 35 명이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Energiewende / “Von der Sonne zur Sonne” 란 주제로 견학을 진행하게 되었다. Energeticon 은 Eschweiler Bergwerks-Verein (EBV)에 속한 Grube Anna (1854년 – 1983년) 라는 광산을 개조하여 석탄 채굴에서부터 시작하여 재생가능 에너지까지 눈으로 귀로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었다.



첫 번째 그룹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였으며 제가 속한 두 번째 그룹은 시간 절약을 위하여 기다리지 않고 역순으로 진행을 하였다.

첫 번째 방문한 곳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담아놓은 공간이었다. 견학 인도자의 설명으로 우리 주변의 에너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게 되었고 그 다음 각자 체험해 보는 개인시간을 갖게 되었다.



Energeticon 견학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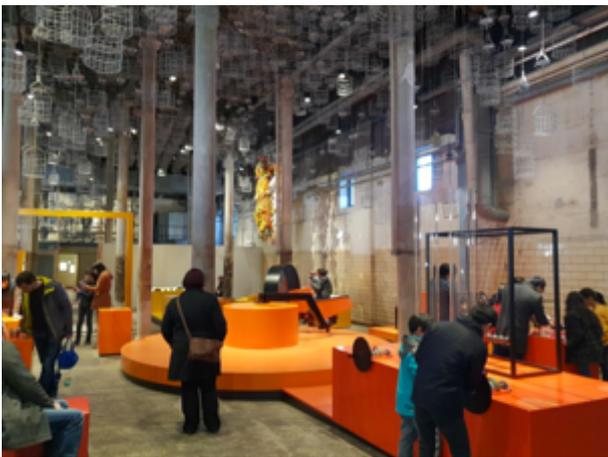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바람을 이용한 자전거 타기도 즐기며 (오른쪽 그림),



자전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지를 체험 할 수 있고 (왼쪽 그림), 같은 압력이라 하더라도 노즐의 크기에 따라 로켓이 어떻게 다르게 올라 가는지를 알아 볼 수 있었다 (오른쪽 그림).



이후에는 광부들의 옷 갈아 입는 곳을 가서 어떻게 광부들이 이곳에서 생활했는지를 알아 보았다. 위에 매달린 바구니에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옷과 신발 등이 있었다 (오른쪽 그림).



그 다음 전시장에는 광부들의 일상 생활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 마음에 들어왔던 구절을 단순 번역해 본다.

ALDENHOVEN		Grube Emil Mayrisch	
Brendel	Alfred	20.06.1967	40 Jahre Aldenhoven
Lim	Moo-ho	04.10.1967	27 Jahre Hoengen
Nierich	Martin	21.11.1967	56 Jahre Siersdorf
Benezeder	Ferdinand Johann	12.10.1968	53 Jahre Aldenhoven
Teoflovic	Mirko	09.11.1968	39 Jahre Setterich
Bösiger	Uwe	08.04.1970	29 Jahre Übach-Palenberg
Chung	Do-Hwa	08.10.1970	35 Jahre Alsdorf
Pradella	Franz	28.11.1970	44 Jahre Setterich
Moon	In-Chul	24.02.1971	22 Jahre Siersdorf
Wolf	Helmut Gustav	20.07.1971	40 Jahre Setterich
Aksu	Mehmet	25.07.1972	42 Jahre Aldenhoven
Beckers	Arnold	25.07.1972	32 Jahre Aldenhoven
Birinci	Ali	25.07.1972	30 Jahre Alsdorf
Sattler	Friedrich Peter	25.07.1972	46 Jahre Baesweiler
Marczyk	Paul	23.01.1974	47 Jahre Alsdorf
Schenker	Johann	16.03.1974	49 Jahre Baesweiler
Artelt	Georg Franz	27.04.1974	44 Jahre Aldenhoven
Kulik	Arthur	18.10.1974	53 Jahre Baesweiler
Gillessen	Karl	15.05.1975	49 Jahre Aldenhoven
Otlesch	Ewald Otto	12.06.1975	45 Jahre Inden
		11.02.1976	46 Jahre Alsdorf

“광부들이 일하는 시간. 6 시부터 14 시까지, 14 시부터 22 시까지 그리고 22 시부터 6 시까지 3 개조로 일한다. 먼지, 열기, 어두움, 지하에서의 어두움. 고갈. 자랑. "화석 에너지 산업의 선두 주자"는 극단적인 일을 했다. 연기가 나는 굴뚝은 진보와 번영을 오래 동안 굳게 지켰다...”

그곳에는 EBV 에서 편찬한 작업 중 사망자 명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Grube Emil Mayrisch 에서 사망한 세명의 한국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멀리 타국에서 홀로 지하갱도에서 죽음을 맞이한 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속으로 묵념을 드렸다. “Glück Auf!”

8 시간 동안 지하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동식 화장실 도 보았고, 그 후 Sonnenraum 에서 태양에너지에 관해 설명을 듣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실제 갱도체험을 하게 되었다. 실제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시청각 자료가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가서 실제 채광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았다. 엘리베이터를 문이 닫히기전 인솔자는 우리에게 “Glück Auf!”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늘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견학을 마무리 하며 한때는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한 석탄이 이제는 인류에 발전에 반하는 것이 되어 버렸지만 그 옛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온 우리의 선배들에 대한 감사는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과학 기술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토론/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캠프 후기

기계 분과장 윤성호

독일 뮌헨에 사는 재독과학회 회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및 기술 지식을 통해 뮌헨 지역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유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의 문화와 환경을 받아들이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 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과학 기술은 지적, 학문적 추구를 넘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그리고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청소년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었고 또한 그것을 실제로 작게나마 구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나누었더니 많은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재독과학회" 회장단에서 재정적으로 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유럽 동반성장 연구회"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한인회, 한글학교, KOTRA, 뮌헨한인교회, 삼성 SDI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으로 도와주신 재독과학회 회원님들 (강갑석, 강남구, 김미현, 김성희, 나세윤, 백은경, 윤성호, 이보현, 이상현, 정효원)과 유럽동반성장 연구회 분들 (최경일, 김병윤) 에게 이 글을 통해서나마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김나지움 11학년까지 약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이 캠프의 주제는 “교과서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학교에서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가?” 입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 차드 지역사회를 과학 기술로 돕고 계시며 프랑스에서 유럽 동반성장 연구회의 멤버로 활약하시는 최경일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위의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최경일 박사는 준비하신 세미나 자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적정 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을 통해 모두가 함께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첼이라는 교육용 서버입니다. 손바닥 보다 작은 기계로 엄청난 양의 교육 자료 (예를 들면 Khan Academy, Wikipedia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 작은 서버는 어디든지 설치하면 이 서버 주변 100m 내에서는 (중고) 컴퓨터를 통해 교육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태양열로 충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 100달러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서버를 아프리카 오지에 가져가서 설치해 주면 이 서버 주변 사람들은 인터넷이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이 있는 것처럼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캠프 중에는 청소년들이 조별로 나누어서 이 레이첼 서버를 이해하고 이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때 재독과학회 회원들이 각 조의 Tutor로 청소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목적 마을 도서관 혹은 레이첼 서버 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립형 돔 (Dome)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돔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교들이 전날 얇은 합판을 정해진 크기로 미리 잘라 두었고 당일엔 우리 청소년들과 설명서를 따라 조립하면 쉽게 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큰 돈을 드리지 않고도 쉽게 마을 다목적

기계 분과 모임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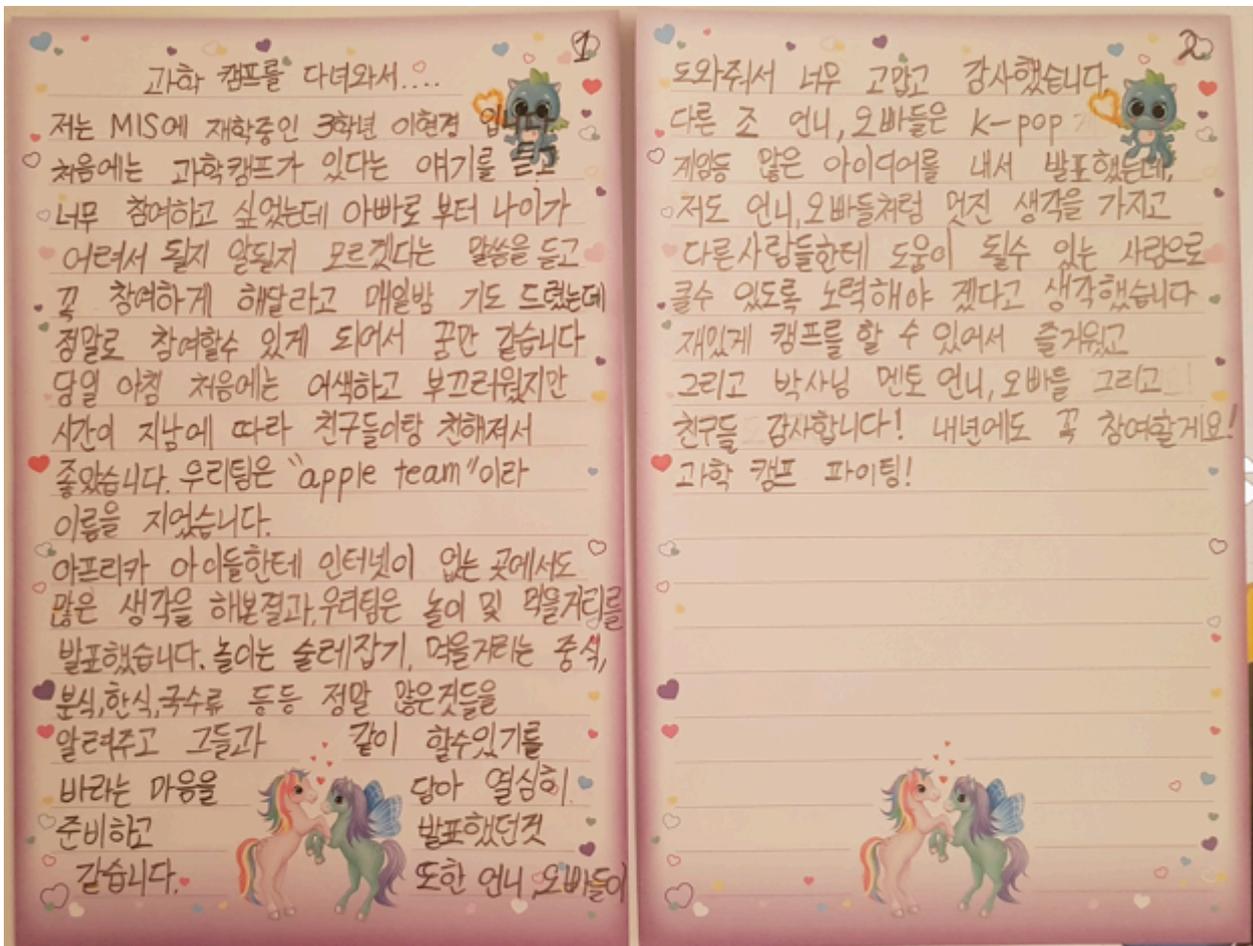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참가한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과학캠프가 단순한 토의에 그치지 않고 함께 실습하며 멋진 돔 제작 방법을 배우는 것은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과학캠프를 통하여 뮌헨에 있는 재독과학회 회원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청소년들과도 우리가 고민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뮌헨 지역 청소년들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MIS에 재학중인 이현경 학생의 참여 후기를 끝으로 짧은 후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My Personal Experience at EKC's & Munich's Science Camp

8지역

강남구 회원님 (TU München)

This year I was lucky enough to attend the EKC 2018 Summer Science Camp and the 2018 Science Camp in Munich as a tutor. Both events were pretty similar, but also different in many ways, likewise my experience attending them.

First of all, to the events themselves, the EKC Summer Science Camp was in Scotland and went over a span of three days whereas the Munich Science Camp was one day on a Saturday. Both discussed appropriate technology topics through a custom raspberry pi server called "Rachel" and how we can create and deploy such servers in less privileged countries to help them get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y would otherwise miss out on. Additionally to Rachel, at EKC, students were able to get an idea of Blockchain, one of the biggest topics of 2018 with the rise (and gradual fall) of cryptocurrency, and also Arduino, a powerful microcontroller that can be used in a wide variety of ways. In both the EKC and Munich camp the biggest event for everyone was the building of the dome, evolutionized from the original chicken dome in 2017, and now serving a wider purpose of being the multifunctional built it yourself structure which allows shelter and room for building the aforementioned Rachel in.

My experience as a tutor at EKC was for the most part a very exciting one. Unlike parts of EKC 2017, I felt like this year every attendee was extremely motivated and genuinely enjoyed the program of the science camp. This made my life as a tutor much easier, as helping attentive students with the help of equally enthusiastic tutors lifted a lot of the burdens of being a tutor and also made the atmosphere of the event delightful. From building the dome to teaching the students the technological topics in addition to making sure to capture very moment of it on camera (since I was designated to create the EKC 2018 video), all of this should be tiring, but it was quite the opposite and honestly it was very fun to take part in. Even the extra tasks like creating a spontaneous presentation for the ending ceremony were manageable. Of course, being a 3-day event at the end of the third day I was pretty much in fatigue, but never felt too broken to not stand back up ^^.

In Munich about 3 months later, the experience was similar but one could feel some differences. Being after the EKC Science Camp, I was already familiar with the topics that were presented during the German variant of the camp, so I was able to mentally prepare for the event without any stress. Munich is the first attempt at starting local science camps and thus came with its complications. While most of the students were into the event in the beginning, some started to sway into their own digital lives on their smartphones. Due to an underestimate of the German students' skill of building the dome there was a lot of break time giving the students an opportuni-



ty to be pulled into their mobile games. Nevertheless, although it was a bit more challenging to help out the students and bring them back into the reality of the camp, in the end all the students created their own personal Rachel html site and I enjoyed watching them learn some unix command line basics and bringing forwards ideas of what they wanted to show their African peers.

From a tutor's standpoint, I feel like EKC was the science camp where I was able to have a unique experience and get to know a lot of new people, since people all over Europe and also Korea attended the event whereas the majority of the Munich Science Camp were locals that I personally knew, so was more like taking a day off to teach and hang out with them, which is also not that bad at all!

All things considered, I think being a tutor at both events helped me learn a lot of things and also just were really great experiences that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o anyone that has the chance to attend them. From the looks of it, Idream's local Science Camps will continue with Munich being the first of its kind and give more and more students a chance to learn about appropriate technology and hopefully make a big impact for not only the African people we hope to help, but also in the future of the European-Korean community.

뮌헨 과학캠프(2018.11.03) 후기

8지역

김성희 회원님 (Universität Regensburg)

뮌헨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캠프를 개최한다 하였을 때, 유학생으로서 뮌헨 지역에 국한되지 만 독일에서 치러지는 한인들만의 과학캠프는 어떨까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을 인도할 튜터를 찾고 계시기에 기꺼이 지원하였고, 그 곳에서 쌓을 수 있었던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캠프 하루 전인 지난 11월 2일 저희는 최경일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박사님들의 지도하에 캠프 준비를 위한 사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캠프의 하이라이트였던 돔(Dom)을 지을 부속품으로 나무판자를 드릴로 자르고, 행어나 아이들이 다칠까 날카로운 부분을 사포질하여 다듬으며 여러 튜터님들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재료 준비를 마친 뒤, 캠프 2부에서 진행하였던 RACHEL 서버에 대해 최경일 박사님께서 튜터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알게 된 RACHEL 이란 Remote Area Community Hotspot for Education and Learning의 약자로 소외된 지역사회의 교육과 학습을 위한 인터넷 서버를 칭합니다. 이 서버에는 칸 아카데미



(Khan Academy) 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비디오들과 위키피디아 페이지 등 양질의 교육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교육자료를 열람 가능합니다. 다양한 교육자료를 담은 Micro SD 카드가 연결된, 휴대가능한 전자기판을 최경일 박사님께서 직접 제조해 오셨고, 해당 전자기판의 전원을 키면 RACHEL 교육 서버가 구축되어, PC를 비롯한 Wifi를 잡을 수 있는 전자기기에서 이 서버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해당 기판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개인이 전자기기만 소지한다면 누구나 교육자료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캠프 당일인 11월 3일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Munich 에서 9시부터 본격적인 캠프가 시작되었고, 교과서도 없고 인터넷이 안 되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나? (How to provide Educational Contents to a Remote School without Internet?)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지난 EKC에서도 진행하였던 돔 만들기를 해 보았고, 분리된 작은 도서관이라고 연상하니 RACHEL 서버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또한 최경일 박사님께서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 차드 Chad 를 예시로 드시며 그 곳의 열악한 환경을 묘사하시며 우리나라와 차드의 발전 역사를 비교하시며 설명해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치고 2부에서는 튜터님들의 통솔 하에 조별로 차드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주제를 정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RACHEL 서버에 직접 올려보았습니다. 독일의 술래잡기 놀이, 독일음식, 독일축제, K-pop, 태권도, 직접 개발한 게임,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들로 콘텐츠를 제작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이웃 나라 친구들을 위해 아이들이 열심히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도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자립적으로 극복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타국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우리나라보다 국토와 자원이 배로 크고 많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왜 20세기 본국에서 전쟁을 치러 황무지였던 우리보다 발전이 더 더딜 수밖에 없었는지 등 최경일 박사의 발표를 들으며 역사 및 정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정보의 접근성에 따라 부의 분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3세계 나라를 도울 때 기계 장치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성장과 같은 소프트웨어 발전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은 이번 RACHEL과 같이 그 나라와 지역의 조건에 맞는 적정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판 안에 다량의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고, 이것이 적정기술의 일환으로 제3세계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신기했습니다. 타국에서 제 삶도 버거워 남을 돌아볼 여유를 찾지 못 했는데, 뜻있는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 첨단기술을 활용해 가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아서 감명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 파리에서 캠프를 위해 땀까지 와 주신 최경일 박사님, 행사 장소 준비부터 진행까지 애써주신 윤성호 박사님과 백은경 박사님, 사전모임을 위해 기꺼이 장소와 푸짐한 저녁식사 제공해주신 이보현 박사님, 튜터들 피곤할까 커피 챙겨주신 강갑석 박사님, 체력적으로 고생하신 여러 튜터님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첫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참관기

1지역

정명수 회원님



처음으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곳 인지 아는것도 없었고,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이 처음이라 궁금했지만, 설레었던 첫 행사였습니다. 행사는 매우 빠르게 지나난것 같습니다. 배우고 느끼기에도 저에겐 첫 시작이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것을 고르자면 모두에게 느낄 수 있었던 엄청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자신들이 선두주자라는 마음 가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연구와 일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발표함에따라 저도 다음에 무엇인가 준비하고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리설계와 힘과 인장 등 또는 풍하중, 설계하중 등 제가 준비할것들은 많을것 같습니다. 또는 시각적인부분에 사람의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도 (예전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왓칭시리즈가 생각납니다) 좋을것 같습니다. 책을 발판으로 발표준비를 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토목에 땅파는 공법도 좋을것 같았습니다. 지지대와 그라우팅 공법에 대해서 발표 준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지만, 재독과협 학술발표대회를 통해서 얻을 경험을 토대로 준비 하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독일에 살면서 큰 목표가 하나 생긴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재학중인 학생인 관계로 시간의 제약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 꿈중 하나인 집을 짓기 위한 모든 과정을 프레젠테이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독과협에서 알게된 많은 전문가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모형도 만들어보면서 모든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 및 선배님들로 인해서 제 삶의 큰 동기를 얻게 된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멋진 학회를 만들어주신 회장단분들과 운영위원분들 그리고 관계자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독과협과의 첫 한 해를 되돌아보며

8지역

정효원 평의원 (LMU München)

나름대로의 꿈을 안고 독일 뮌헨으로 건너와, 남들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학사과정을 다시 시작하지 3년차에 접어들던 2017년 초, 재독과협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되어 지역회 친목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협회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였고, 과학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런저런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유나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좋았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비록 학사 졸업이 코 앞이라 정기총회를 비롯한 본부의 큰 행사들은 참석할 수 없었지만, 8지역회의 세미나와 친목 모임만큼은 꼬박꼬박 참석하였다. 그렇게 협회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무렵, 학사 졸업 후 석사 진학을 함과 동시에 8지역 평의원직을 권유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협회 활동 및 참여가 시작되었다.

나는 살면서 필름이 끊겨본 적이 없다. 술보다는 이야기가 좋아서 그 이야기들을 잊지 않을 만큼만 마신다. 그 정도로 나에게서는 대화가 중요한데, 재독과협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의 그런 욕구를 단숨에 충족 시킨다. 그저 가벼운 수다나 농담에서 그치지 않고 학술적인 토론과 진지한 고민 역시 조화로운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적인 분위기는 내가 협회 행사를 꼭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춘/추계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어로 학술발표를 해볼 수 있었다는 건 유학생으로서 재독과협이 아니었으면 해보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한 다른 회원들의 발표를 들으며 내가 공부하는 분야 외에도 다양한 세부 분야를 간접적으로 배우고 학업과 연구에 대한 에너지 또한 얻을 수 있었다.

3월 Berlin에서 있었던 제1차 평의원 회의, 5월 Darmstadt에서의 춘계학술대회, 그리고 10월 Essen에서 있었던 제2차 평의원회의와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그리고 8지역에서 개최했던 크고 작은 모임들과 두 번의 학술 세미나. 재독과협과는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는 나의 2018년 한 해가 정신 없이 지나갔다. 나를 믿고 평의원직을 넘겨주신 전임 평의원의 면을 살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협회의 열정과 취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애정과 책임의식을 갖고 활동하면서 짧은 시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8지역 회원들의 따뜻한 호응 덕에 즐거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더불어, 10월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행사에서 장학상 시상에 선발 되어 생각지 못한 격려까지 받음으로써 나에게 2018년은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완벽한 한 해였다. 다가오는 2019년에 대한 지역평의원으로서의 동기 부여와 함께, 내년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배움을 얻게 될지 회원으로서의 설렘 또한 느끼며, 타지에서 고생하는 회원들이 소중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도록 늘 앞장서서 봉사해주시는 회장단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글을 마친다.



벌써 8번째의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5지역

정현덕 회원님 (Forschungszentrum Jülich)

필자는 2011년부터 정기총회에 참석해 왔지만, 3년간 5지역의 평의원으로 활동하여 평의원 회의가 있는 첫날의 네트워크 시간은 4년만에 즐길 수 있었다. 1분 1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회장님과 간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평의원 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즐거운 네트워크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독과협의 가장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인 평의원 회의 시간의 단축에 의해 12시를 알리며 반가운 얼굴들이 합류하였고, 실로 오랜만에 첫날부터 모든 회원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날, 필자는 오전에 재료분과에서 발표를 진행하였다. 세션제안이 본인의 연구가 아닌 최근 연구 동향을 조사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이전에 있었던 학술발표와 달리 새로운 시도였다. 개인적으로 춘계학술대회에도 발표가 있었기에 발표준비에도 부담을 덜 수 있었고, 특히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 학사, 석사 학생들에게도 발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분과에서, 혹은 독립된 세션으로 계속 시도 되기를 희망해 본다.

저녁시간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3년간 회장으로 활동한 박원선 회장님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운 회장단의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회장님, 부회장님, 간사장님 연임 의사를 밝히셨고, 그 동안의 노고와 업적을 대신하듯이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되었다. 선발이 끝난 후 3년간 노고에 회원들이 느낀 고마움을 영상으로 담아 상영하는 시간이 있었다.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행사준비 시작부터 두 분의 감사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 몇 일 후 간사장님이 회장님 몰래 영상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여 운영위원들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다. 정기총회에서도 이 때문에 간사장님 본인을 위한 감사영상을 간사장님 본인이 소개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서로를 생각하는 회장님과 간사장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의 3년도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치지 않고 나아가시길 희망해 본다.



전문분과 연계 콘텐츠 활성화 및 지역, 연구소 정보 교류를 위한 데이터 수집사업 (전문정보사업)

전 회원 대상, 독일에서 연구를 시작하거나 연구과정 중 개별 연구소 및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원고모집 사업입니다.

- 1) 학사과정: 거주지역 유학생황에 필요한 정보소개 (학교 소개/시설/입학정보/기관이 위치한 지역소개/기타)
- 2) 석사, 박사과정: 전공에 따라 과정, 학교 또는 연구소 특징과 흐름 소개 (독일에서 연구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지원방법, 학업과정의 특징, 연구소의 중점사항), 연구소 소개 (독일에서 연구하기, 연구소의 특징)

또한 박사과정 이상이나 연구소 소속 연구원 대상으로 본인 분야에 대한 개괄적 소개 또는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 받는 독일의 신기술 소개를 중점으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전문성강화를 위한 원고모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과 원고접수방법은 홈페이지 내 안내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편집간사 김민재 (minjae.kim@vekni.org)

회원 공지)

전문분과 연계 콘텐츠 활성화 및 지역, 연구소 정보 교류를 위한 데이터 수집사업 (전문정보사업)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독과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2018년 현재 아래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홈페이지가 더욱 편리하고, 새로운 정보 가득한 홈페이지로 변화하였습니다.

www.vekni.org

회원가입 안내)

온라인을 통해 (<http://reg.vekni.org>) 신입회원 등록과 함께 기존 회원님의 정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모든 회원님께서 아래 링크에 등록하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별, 분과별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중요합니다.

문의 : 정보간사 편성열 (sungyeol.pyeon@vekni.org)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페이스북 그룹



회원간의 소소한 이야기와 일상을 전하는 공간, 재독과협 페이스북 그룹이 개설되었습니다. 회원간 친목, 사진 게시, 질의 응답 등의 비공식적인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내에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검색 또는 다음 링크 주소를 이용바랍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입, 열람,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www.facebook.com/groups/348153868866931

문의 : 홍보간사 김청희 (cheonghee.kim@vekni.org)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카카오톡 오픈채팅



아래주소로 들어오시면 재독한국과학기술자 협회 회원분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가입, 열람,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https://open.kakao.com/o/gizwXBr>

문의 : 홍보간사 김청희 (cheonghee.kim@vekni.org)

2019년 주요 행사 일정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지역 및 전문분과 모임 및 워크숍

일시: 수시

장소: 12개 지역회 및 8개 전문분과회

참가대상: 재독과협 회원

회장단 워크숍

일시: 수시

장소: Kiel 등

참가대상: 재독과협 회장단

2019년 1차 평의원회의

일시: 2019년 3월 1-3일

장소: Saarbrücken

참가대상: 재독과협 평의원

자문위원회

일시: 2019년 4월 4-7일

장소: 미정

참가대상: 재독과협 자문위원 및 회장

2019년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9년 5월 3-5일 (금-일)

장소: Stuttgart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Young Generation Forum/Young Professional Forum

일시: 2019년 7월 1-7일 (월-일)

장소: 대한민국

참가대상: 재독과협 추천자

EKC 2019 (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일시: 2019년 7월 15-18일 (월-금)

장소: Vienna, Austria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유럽의 과협회원, 한국 및 유럽의 과학기술자

2019년 2차 평의원회의

일시: 2019년 10월 4일

장소: Essen

참가대상: 재독과협 평의원

2019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9년 10월 4-6일

장소: Essen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제3회 한-독환경워크숍

일시: 2019년 10월 15-16일

장소: Stuttgart

참가대상: 재독과협 회원, 한국, 독일 및 유럽의 환경전문가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일시: 2019년 11월 21일 (목)

장소: Singapore

참가대상: 회장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KNI e.V.

Holtenuer Str. 69.
24105 Kiel, Deutschland

Homepage : www.vekni.org

E-Mail : info@vekni.org

회원들의 제보 및 의견을 받습니다.

minjae.kim@vekni.org 편집간사 김민재



Email: info@vekni.org